

노후주택 개보수로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전주시, 복권기금·시비 등 총 4억3200만원 투입해 저소득층 72가구 주택 개보수 지원

전주시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노후·불량 주택을 수리해 저소득가구에 쾌적한 보금자리를 제공기로 했다.

시는 이날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복권기금과 시비 등 총 4억3200만 원을 투입해 노후·불량 주택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및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올해 총 72가구의 주택 개보수를 지원할 예정으로, 가구당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여 대상 가구에 대한 현지 실사를 통해 △창호 및 보일러 교체 △벽체·



전주시는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사업'을 추진한다.(사진 왼쪽부터 공사 전,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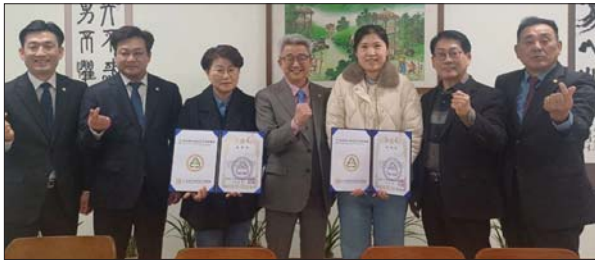
지붕단열 시공 △방범 시설 설치 △부여·화장실 개보수 등 주거공간 개선 및 에너지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사업을 통해 총 185억 5100만 원을 투입해 600여 가구의 주택 개보수를 지원했다.

김성수 전주시 건축과장은 "열악한 주거 공간에서 힘들어하는 주민들이 보다 안락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지원 대상 가구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인 만큼 내년에는 더욱 사업 규모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개보수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건축과 (063-281-2084)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옥기 기자



(사)한국재사용빈용기순환협회가 탄소중립 실현의 발판이 될 재활용 문화 확산에 적극 행정을 펼친 전주시청 공무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재활용 문화 확산 적극 행정 공로

한국재사용빈용기순환협회, 전주시 우수 공무원 2명 표창장 수여

(사)한국재사용빈용기순환협회가 탄소중립 실현의 발판이 될 재활용 문화 확산에 적극 행정을 펼친 전주시청 공무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광규 (사)한국재사용빈용기순환협회 회장은 지난 13일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실에서 복지환경국 기후변화대응과 미세먼지대응팀에서 근무하는 백하나 주무관과 자원순환녹지국 청소지원과에서 일하는 황인로 재활용팀장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적극 행정을 펼친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하고, 상장과 상패를 전달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탄소중립 실현을 앞장서 온 전주시의회 김운철 복지환경위원장(중앙·풍남·노송·인후3동)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위원회 활동을 적극 임해 온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채영병 의원(효지2·3·4동, 전주시

청소·환경행정에 각별한 애정을 표해 온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양영환 의원(동서학,서서학,평화1·2동)이 시상식에 참여해 축하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 자리에서 이광규 회장은 "전국 지자체 주무관들을 수없이 겪었지만 백하나 주무관처럼 맡은바 업무에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주무관은 극히 드물 것"이라고 선정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황인로 팀장 또한 재활용 업무에 해박함과 적극성으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너무 열심히 뛰고 있어 이 두 사람에게 표창을 수여 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이광규 회장은 이야기를 덧붙이며 국민들의 권리를 찾고 편의를 제공 하기 위하여 각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공병회 수기와 빈용기 반환 시스템의 전국 설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설공단, 해빙기 시설 안전 점검

공영주차장 115개·공원 체육시설 등 27개 시설 대상

전주시설공단(이사장 이연상)이 해빙기를 맞아 공단이 운영하는 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안전 점검을 진행했다.

지난 14일 공단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해빙기 기온 상승에 따른 건축물 균열, 침하 등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공영주차장 115개와 체육시설, 공원 시설 등 27개 시설을 대상으로 최근 열흘간 진행했다.

△건축물 기울기, 침하, 균열 상태



전주시설공단이 해빙기를 맞아 공단이 운영하는 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안전 점검을 진행했다.

△배수구 및 난간 설비 안전상태 △전 축 전기, 기계, 소방 분야 등을 중심으로

로 분야별 체크리스트에 따라 공간 기술직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서 시설 안전성을 점검했다.

공단은 장비가 시급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를 완료했으며, 시간과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보수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안전 점검은 '안전 점검의 날'의 일환이다.

공단은 시민과 직원 모두가 안전한 시설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매달 테마를 정해 안전 점검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연상 이사장은 "기온 상승에 따른 해빙기 위험에 대한 선제적 시설 안전 점검으로 위험을 조기 발견하고,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안전 사각지대 없는 공간 시설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완산소방서, 제4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개최

전주완산소방서(서장 박덕규)는 지난 14일 오전 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제4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행사는 '연제나 국민 곁에, 하나 되는 의용소방대'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이 날 행사에는 김희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전북특별자치도의원 및 최주만 전주시의회 부의장, 전주시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의용소방대원들의 활동 업적을 기리고 기념행사를 축하하였다. 특히 활동 실적이 우수한 대원에게는 표창이 수여되었다.

의용소방대는 갑오개혁 이후 경성

(현 서울특별시)에서 소방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소방조'를 구성한 것이 시초이다. 1968년 소방법에 의용소방대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우리나라 봉사단체 중 유일하게 법으로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1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1968년 소방법에 의용소방대 설치 근거가 마련된 날인 '3월 11일'과 '119'를 조합해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 날로 지정하였으며, 올해로 4주년을 맞이하였다.

전주완산소방서 의용소방대는 5개대 정원 15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재난 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의



전주완산소방서는 지난 14일 오전 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제4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소방업무를 보조하고 화재 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를 돕는 등 지역사회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박덕규 전주완산소방서장은 "지역사

회 안전을 위해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한 의용소방대원들의 기념행사를 축하한다"며 "의용소방대가 앞으로 써 내려갈 희망찬 미래를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비만 예방의 날'을 맞아 14일 고사동 중앙 살림광장에서 시민들에게 비만 예방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비만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일상에서 가볍게 걷고, 물을 마시고, 나트륨·당·지방을 줄이자'를 주제로 △영양 및 신체활동 상담 △건강 식단 전시 등 다양한 체험관이 운영됐으며,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슬로건 퀴즈 이벤트도 펼쳐졌다.

보건소는 또 시민들이 일상에서 걷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활용한 '15일간 12만보 걷기 챌린지'를 운영한다.



챌린지는 스마트폰을 소지한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워크온 내 전주시 커뮤니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올해 시민의 걷기 실천을 더욱 장려하기 위해 챌린지 기간을 늘리고, 추첨대상자도 500명으로 확대했다.

시는 이번 캠페인에 이어 오는 5월 에도 전북대학교 구경문 버스킹존에서 비만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김옥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렸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전인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날 논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